

로어와의 대비속에서 본 토에 의한 조선어문장의 진술관계표현수법

장 미 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체과정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며 그 언어교제를 표현하는 기본수단은 다름아닌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의 일반적인 징표는 의미의 상대적완결성, 문법적형식화, 진술성 등이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문장의 의미적완결성, 진술성이다. 문장은 끝맺음이 있으며 의미론적계기, 심리의지적계기, 문법적계기들이 뚜렷한 진술단위이다.

봄. 봄이 왔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 다가왔다.

Весна. Пришла весна. Пришла весна, когда оживает вся природа.

우의 조선어문장과 로어문장은 구체적인 표현형식은 다르지만 의미론적계기, 심리의지적계기, 문법적계기들이 통일적으로 맞물리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도래했다는 완결된 사상과 그러한 봄을 맞이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조선어문장과 로어문장은 다같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두개의 단어 혹은 여러개의 단어결합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면서 하나의 진술단위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어와 로어로 된 문장들은 진술성을 나타내는 문법적표현수단과 수법 즉 문법적형식에 있어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해당 민족어의 모든 문장들은 자기에게 고유한 언어법칙에 따라 문법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될 때 비로소 문장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언어의 문장은 문장론적공통점을 가지는것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자기 식의 고유한 문법적특성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로어와의 대비속에서 본 토에 의한 조선어문장의 진술관계표현수법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문장의 진술관계 즉 진술성은 문장의 본질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어문장의 진술성이 범범주, 시칭범주, 인칭범주에 의하여 실현된다면 조선어문장의 진술성은 범범주와 시간범주, 말차림범주에 의하여 실현된다. 두 언어의 진술성이 서로 다른 자기특유의 문법적범주들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말하는 사람과 현실, 진술내용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두 언어의 대비적연구가 가능하며 두 언어에 고유한 진술성표현관계도 련관속에서 원리적으로 인식할수 있다.

두 언어에서 진술관계는 문법적범주들에 의하여 표현되는 의미적공통점과 표현수단에서의 차이점으로 설명할수 있다.

로어에서는 범범주에 의하여 표현되는 직설법과 명령법, 조건－희망법의 표현수단들에

의하여 현실적 또는 비현실적인 양태성을 나타낸다면 조선어에서 이러한 양태성은 진술적관계를 세밀하게 표현해주는 조선어특유의 토에 의하여 표현된다. 조선어에는 로어의 현실적 또는 비현실적인 양태적관계에 대응하는 토들이 다양한 뜻빛깔을 안고 대응되며 그 종류가 많고 의미가 매우 풍부하다. 토는 조선어에 특이한 문법적형태부일뿐아니라 그 갈래와 종류, 수량이 많아 언어진술의 다양한 문법적관계를 충분히 나타낸다.

고대시기에는 우리 조선어에도 토가 없었으며 사람들은 어휘를 기본으로 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그러다가 B.C. 3세기 - A.D. 10세기에 조선어의 문법구조를 체계화하고 한자와 함께 글자들사이의 호상관계를 구분하여 그 뜻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발생한 토는 200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와서는 단어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면서 문법적형태를 이루어주는 하나의 문법적수단으로 되었다.

토는 세계언어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는 굴절어, 고립어, 포함어에는 없고 교착어들에만 있는데 교착어중에서도 조선어의 토는 오랜 발전과정을 거쳐오면서 발달되었다.

굴절어로서 로어의 인칭과 시칭에 따르는 문법적형태와 의미, 교착어로서 조선어의 토와 의미에 대한 대비적인식은 두 언어에서 문장의 진술관계표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조선어에서 토는 크게 대상토와 서술토, 자리토와 끼움토로 갈라본다.

	자 리 토			끼 움 토		
	토	례		토	례	
대상토	격토	가/이 에	지배인 <u>이</u> , 옥이 <u>가</u> , 앞 <u>에</u> , 뒤 <u>에</u>	복수토	들	영웅 <u>들</u> , 나라 <u>들</u>
서술토	맺음토 이음토 엮음토 꾸밈토	다 며 ㄴ 게	재미나 <u>다</u> , 세 <u>다</u> 빠르 <u>며</u> , 쓰 <u>며</u> 굳 <u>은</u> , 뭉 <u>친</u> 밝 <u>게</u> , 굳 <u>게</u>			
그밖의 토				바꿈토 상토 존경토 시간토 도움토	ㅁ 이 시 겠 았(었,였) ... 도	배움, 굳셈 늘 <u>이다</u> , 쓰 <u>이다</u> 읽 <u>으신다</u> , 보 <u>신다</u> 옳 <u>겠</u> 다, 바치 <u>겠</u> 다 읽 <u>었다</u> , <u>갔</u> 다 사람 <u>도</u> , 있어 <u>도</u>

조선어의 수많은 토들가운데서 이 글에서 논의되는 진술적관계표현수단은 맺음토와 존경토, 시간토이다. 특히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면서 말법과 말차림을 나타내는 맺음토는 그 개수가 매우 많아(193개 - 다, ㄴ다, ㅂ니다, 게, 요, 소, 라, 렴...) 로어의 진술관계표현수단들로는 나타낼수 없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현실과의 구체적인 양태성들을 다 표현할수 있다. 례를 들어 《-다, -ㄴ다, -ㅂ니다, -요 등》이 알림문에서 높임과 같음, 낮춤의 말차림관계를 나타낸다면 《-소, -라, -렴 등》은 명령, 시킴의 다양한 뜻빛깔을 나타낸다.

아이가 잔다.

책을 읽소.

아이가 잡니다.

책을 읽으라.

아이가 자요. 책을 읽으렴.

조선어와 로어 두 언어의 진술관계표현수단들과 그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두 언어는 다같이 알림문, 물음문, 추김문, 시킴문(로어에서는 추김과 시킴의 진술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명령문으로 되어있다.)으로 갈라지며 자기 고유의 표현수단으로서 진술관계를 나타낸다.

로어에서는 술어로 표현된 동사, 형용사, 명사의 형태와 억양, 문장부호들에 의하여 문장류형이 갈라진다면 조선어에서는 맺음토만으로도(물론 존경토, 시간토, 억양, 문장부호 등의 작용도 있다.) 다양한 진술문들을 구분할 수 있다.

조선어에서 맺음토란 동사, 형용사 또는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며 풀이를 하면서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토이다. 조선어에서 맺음토는 말차림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을 구분해주는 기본수단으로 된다.

조선어문장에서는 맺음토에 의하여 문장의 완결 즉 끝맺음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로어와는 달리 말법과 말차림이라는 문법적의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알림	물음	추김	시킴
높임	-니다	-니까	-시다	-시오
갈음	-네, -오(소)	-니가, -니	-세	-게
낮춤	-다, -나	-느냐	-(하)자	-(하)라, -렴

알림문: 그는 대학으로 갑니다.(높임) Он идёт в университет.
 그는 대학으로 가네.(갈음) Он идёт в университет.
 그는 대학으로 간다.(낮춤) Он идёт в университет.

추김문: 영화관에 갑시다.(높임) Пойдём в кинотеатр.
 영화관에 가세.(갈음) Пойдём в кинотеатр.
 영화관에 가자.(낮춤) Пойдём в кинотеатр.

물음문: 그는 대학으로 갑니까?(높임) Он идёт в университет?
 그는 대학으로 가니?(갈음) Он идёт в университет?
 그는 대학으로 가느냐?(낮춤) Он идёт в университет?

시킴문: 영화관에 가십시오.(높임) Идите в кинотеатр.
 영화관에 가게.(갈음) Иди в кинотеатр.
 영화관에 가라.(낮춤) Иди в кинотеатр.

그러나 로어문장에서 진술관계는 법범주와 시칭범주, 인칭범주 등 여러 문법적범주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표현된다.

로어에서는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조선어의 맺음토와 같은 전문적인 표현수단이 아니라 진술관계표현의 기본수단인 동사, 형용사, 명사 등 술어의 다양한 형태와 보조적인 수단들에 의하여 문장의 완결, 끝맺음이 결정된다.

조선어의 맺음토는 항상 문장의 마지막위치를 차지하면서 진술관계를 표현하고 문장의 끝맺음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만 로어에서는 어순의 자유로운 성질로 하여 보조적수단들인 점과 같은 문장부호들과 어울리면서 문장의 완결성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문장부호들은 어느 언어에나 있는 필수적인 표현수단이다.

직설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로어의 알림문과 물음문은 시칭법주와 인칭법주를 동반하고 시칭과 인칭 등의 문법적의미를 가진 동사형태들을 표현수단으로 한다면 명령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김과 시킴의 명령문은 로어에 고유한 형태인 《Давай(те) + 동사완료태 복수1인칭》결합형태와 동사명령형형태들을 표현수단으로 한다.

알림문:	Он едет в университет.(높임) (같음) (낮춤)	그는 학교로 간다. 그는 학교로 갑니다.
물음문:	Он едет в университет? (높임) (같음) (낮춤)	그는 학교로 가니? 그는 학교로 갑니까?
명령문:	(추김) Давайте пойдём в кино. (높임) Давай пойдём в кино. (같음) (낮춤) (시킴) Идите в кино. (높임) Иди в кино. (같음) (낮춤)	영화관에 갑시다. 영화관에 가세. 영화관에 가시오. 영화관에 가게. 영화관에 가라.

우의 문장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로어문장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사이의 관계가 구분되지 않으며 추김문과 시킴문에서 어미 -те가 쓰이면서 간단히 언급된다.

조선어문장 《우리는 래일 평양으로 전학을 갑니다.》, 《너희들은 언제 평양으로 가니?》에서는 《-히니다》, 《-니》와 같은 맺음토에 의하여 알림과 물음이라는 문장의 진술관계가 표현되는것과 동시에 앞의 문장에서는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높임을, 뒤문장에서는 낮춤을 나타내면서 말차림관계가 표현된다. 그러나 그에 대응되는 로어문장 《Завтра мы поедem на экскурсию в Пхеньян.》에서는 동사의 인칭변화형태로 인칭과 시칭의 의미는 표현되지만 말차림관계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

결국 두 언어의 실례문장들에서 진술관계는 동사들을 수단으로 표현되었지만 자기 고유의 언어학적특성으로부터 조선어문장에서 술어로 표현된 《가다》는 위치상 마지막위치를 차지하고 맺음토 《-히니다》, 《-니》에 의하여 알림과 높임,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며 로어에서 술어로 표현된 동사 《поехать》는 문장의 임의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말하는 시점에서 복수1인칭과 미래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조선어는 로어와는 달리 레절관계표현의 정연한 문법적체계를 이루고있다.(말차림법주와 존경법주)

조선어에는 레절관계를 표현하는 수법으로서 존경법주를 비롯한 문법적수단(존경토 《-시-》)이 체계정연하게 발달되어있고 존경의 뜻 또는 뜻빛갈을 가진 어휘(말하다-교시하다, 아버지-아버님, 자다-주무시다, 있다-계시다 ...)들도 일정한 질서속에 놓여있다. 또한 높임, 같음, 낮춤을 나타내는 맺음토와 존경토와 같은 말차림법주의 문법적표현수단들과 부름말(교장선생님, 지배인동지 ...)을 비롯한 어휘적수단들, 말법을 바꾸는 문장론적수

법들도 정연한 질서를 이루고 듣는 사람에 대한 레절관계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레절관계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문법적범주들과 어휘적수단들, 문장론적수법들이 체계정연하게 발달되어있는것은 조선어의 레절관계표현수법의 우수성을 보여줄뿐 아니라 조선어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으로 된다.

특히 논문에서 언급되는 맺음토는 말차림범주의 기본표현수단으로 존재하며 그 기능과 종류 또한 다양하다.

높임의 말차림을 나타내는 맺음토들로는 《습니다/ㅂ니다》, 《답니다/랍니다》, 《습디다/ㅂ디다》, 《답디다/랍니다》, 《습니까/ㅂ니까》, 《답니까/랍니다》, 《습디까 ㅂ디까》, 《답디까/랍니다》, 《ㅂ시다》, 《자구요》, 《자요》, 《십시요》, 《세요》, 《라구요》, 《라요》, 갈음의 말차림을 나타내는 맺음토들로는 《요》, 《요/소》, 《다요》, 《라오》, 《네》, 《다네》, 《라네》, 《데》, 《군》, 《구려》, 《구만》, 《누만》, 《ㄹ시고》, 《지》, 《나, ㄴ가/는가, 던가 ㄹ가, 다지, 라지, ㄴ지/는지, 던지, 네, ㅂ세, 자구, 시요, 게, 구려, 라구 등》, 낮춤의 말차림을 나타내는 맺음토들로는 《다, 라, 단다, 란다, 도다, 로다, 아라, 어라, 여라, 구나, 누나, 노라, 더라, 도라, 마, 냐, 느냐, 더냐, 로소냐, ㄹ, 자, 자꾸나, 렴, 려무나, 렴, 려마》 등이 있다.

조선어에서 말차림범주와 존경범주는 레절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말차림범주는 맺음토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사이 레절관계를 나타내고 존경범주는 존경토에 의하여 문장의 술어로 표현된 행동의 수행자에 대한 레절관계를 표현한다.

이러한 관계로 하여 다양한 의미의 맺음토들에 의하여 진술성을 표현하는 조선어는 듣는 사람에 대한 레절관계를 표시하는 경우에 대상의 특성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정밀하게 표현한다.

례: 그가 학교에 갑니다.(좀더 높임-일반뜻빛갈)

그가 학교에 가요.(높임-친절성과 상냥한 느낌의 뜻빛갈)

그가 학교에 가오.(갈음-어느 정도 존중하는 뜻빛갈)

그가 학교에 가네.(갈음-아래사람을 존중하여 대하는 뜻빛갈)

그가 학교에 간다.(낮춤-일반뜻빛갈)

그가 학교에 가(아).(낮춤-강조하려는 뜻빛갈)

조선어에서는 하나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표현되었지만 로어에서는 이에 대하여 한가지 표현밖에 없다.

Он идёт в школу.

물론 로어에도 레절관계를 표현하는 수단과 수법들이 있다. 즉 인칭대명사 **вы**, 명령형에서 **-те**를 리용한 표현수법과 성, 이름, 부칭을 통한 부름법에 기초한 존경을 표현하는 수단들과 수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로어에서는 레절관계표현이 조선어에 비교할 때 단순하고 제한되어있으며 하나의 문법적범주로 규범화되어있지 않다.

둘째로, 두 언어는 다같이 자기 고유의 표현수단으로 시간관계를 나타낼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인칭관계를 나타내는데서는 차이를 가진다.

로어의 시간관계는 인칭에 따르는 동사의 인칭변화형태와 과거형태 《-л, -ла, -ло, ли》에 의하여 나타난다면 조선어에서는 과거는 시간토 《-았, -었, -였》, 미래는 《-겠》, 현재는 시간토를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조선어의 시간토들은 반드시 뻗음토와 결합되어 시간관계를 나타낸다. 결국 조선어에서는 시간토 《-았, -었, -였》, 《-겠》에 의하여 나타나는 시간관계도 문장의 완결을 나타내는 뻗음토와 결합하여서만 진술적관계를 원만히 나타낼수 있다.

례: 현재형: 어머니는 직장으로 간다. - Мама идёт на работу.

과거형: 아버지가 직장으로 갔다. - Папа ушёл на работу.

미래형: 그들은 직장에 갈것이다. - Они пойдут на работу.

조선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토 《-았》, 《-었》, 《-였》은 아래의 표에 제정된 규칙에 따라 용언(동사, 형용사)들과 결합된다.

토	뻗음토의 앞모음	원 형	결합형태
《-았》	ㅏ, ㅑ, ㅓ	찾다 얹다 보다	찾+았+다 얹+았+다 보+았+다
《-었》	ㅣ, ㅕ, ㅖ, ㅗ, ㅛ, ㅜ	지다 세다 쥐다 채다 되다 희다	지+였+다 세+였+다 쥐+였+다 채+였+다 되+였+다 희+였+다
《-였》	기 타	벗다 열다 두다 싫다 만들다	벗+였+다 열+였+다 두+였+다 싫+였+다 만들+였+다

조선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토 《-겠》은 일반적으로 앞으로의 확고한 계획, 결심에 대하여 표현한다. 일정한 조건과 환경을 타산하여 세워진 계획과 행동 또는 3자의 앞으로의 행동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ㄹ것》이 쓰인다.

나는 지금 학교로 간다(가고있다). Сейчас я иду в школу.

래일 너한테 가겠다. Завтра я пойду к тебе.

가능하면 너한테 갈것이다. Если можно, я буду идти к тебе.

영수는 너한테 갈것이다. Он Су пойдёт к тебе

조선어의 뻗음토들은 인칭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인칭에 관하여 같은 형태를 이루지만 로어의 동사들은 철저히 인칭에 매인다. 즉 조선어문장에서는 로어문장진술관계표현의 기본수단으로 되는 인칭범주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셋째로, 두 언어는 말하는 사람과 현실, 진술내용사이의 비현실적인 가정관계도 표현할수 있다. 로어에는 가정조사 **бы**와 동사과거형형태를 표현수단으로 하는 조건-희망법이라는 하나의 문법적범주가 체계화되어있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말차림관계의 낮춤을 나타내는 회화체로서의 뻗음토 《-ㄹ걸》에 의하여 가정이라는 진술관계를 나타낸다.

어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전학갔을걸.

Если бы вчера не было дождя, мы пошли бы на экскурсию.

넷째로, 조선어문장에서 진술성을 나타내는 맺음토, 시간토, 존경토 등은 자기의 독자적인 의미적기능을 가지면서도 맺음토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진술적관계를 표현하지만 로어문장들의 진술성은 술어로 표현되는 동사적형태 하나로 표현한다.

《선생님이 오시였습니다.》에서 동사 《오다》는 존경토《-시-》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토《-였-》, 말차림관계의 높임과 알림을 나타내는 맺음토《-습니다》가 결합되면서 문장의 진술성을 표현함으로써 진술내용의 주인공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높임관계, 말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내용의 과거 등과 같은 진술적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있다.

오다 → 오+시+였+습니다. = 오/시/였/습니다.

Учительница пришла.

이처럼 조선어문장에서는 진술관계가 맺음토와 시간토, 존경토의 종합적형태로 나타난다면 로어에서는 인칭과 시칭의 의미를 담고있는 동사적형태로만 나타난다.

로어와의 대비속에서 본 토에 의한 조선어문장의 진술관계표현수법에 대한 연구는 말차림관계와 존경관계가 뚜렷이 표현되는 조선어문장의 진술관계표현수법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조선어의 토들을 정확히 활용할수 있게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선어로, 진술관계